

ETF 전략

ETF가 선택한 종목들: 편출입 효과와 투자 아이디어

구조 변화 중인 한국 주식형 ETF, 높아지는 '선택'의 중요성

한국 주식형 ETF 성장과 함께 집중투자형(편입 종목 수 1~20종목) ETF 비중이 높아지며 ETF의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집중투자형 ETF의 순자산 총액 및 거래대금 내 비중이 각각 38%, 44%까지 확대됐으며, 그 결과 ETF 내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은 평균 1.1%에서 1.28%로 증가했다.

ETF 편입은 ETF 영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TF 편입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1)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유입, 2) 편입 이후 ETF를 통한 자금 유입, 그리고 3) 편입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신호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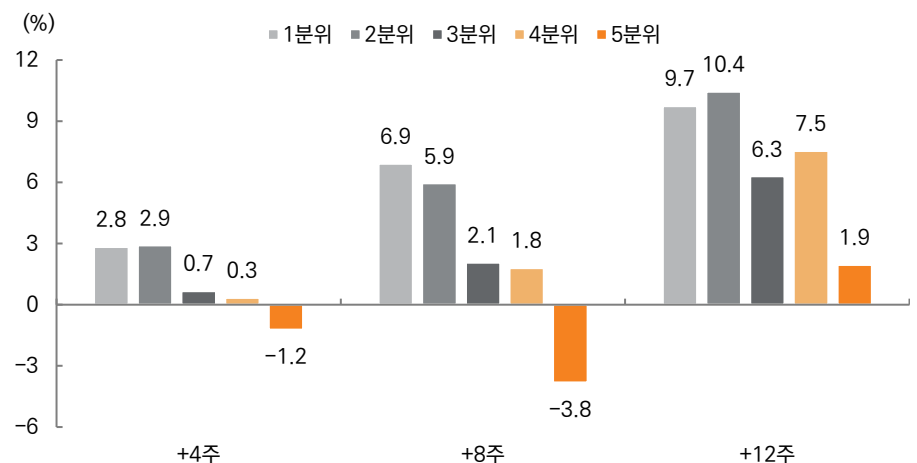
ETF 편입은 '선별된 종목'이라는 신호로 작용한다. 특히 상당 기간 편입이 없던 종목이 신규 편입되면 유사한 다른 ETF에도 편입되는 '군집 효과'가 관찰되며, 순편입 수가 증가한 산업과 종목이 시차를 두고 주가 상승을 보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ETF 편출입을 활용한 투자 아이디어: ETF가 선호하는 개별 종목/산업 찾기

[개별 종목] 최초 편입/순편입 수 증가: 종목 단위에서 신규 편입과 순편입 수 확대는 특정 종목에 대한 ETF의 관심을 반영한다. 장기간 신규 편입이 없던 종목에서 발생하는 편입은 해당 종목이 ETF의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며 시장의 관심권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순편입 수는 여러 ETF가 같은 종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1) 최초 편입 종목 및 2) 최초 편입 이후 편입이 3건 이상으로 누적되는 과정에서 개별 종목 성과도 개선을 보였다.

[산업] 순편입 수가 늘어나는 산업: 산업, 배당, 테마 등 다양한 유형의 ETF가 유사한 시점에 특정 산업의 순편입을 늘리는 것은 시장 주도 산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 산업 단위 내에서는 ETF에서 순편입을 늘려나간 산업의 성과도 좋았다. ETF가 해당 산업의 유동 시가총액 내에서 보유한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3~5%, 5~7% 구간에 속한 산업의 성과가 좋았다.

순편입 수 분위별 평균 성과(1분위: 순편입 수 상위 20%, 평균 성과는 집계 종료 후 성과)



I. ETF 편출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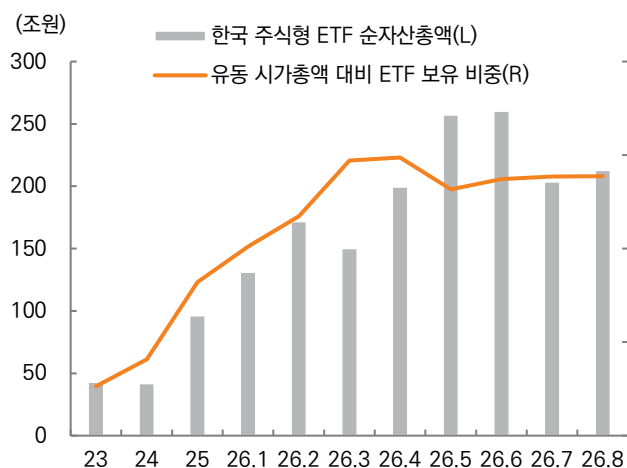
구조 변화 중인 한국 주식형 ETF, 높아지는 '선택'의 중요성

집중투자형 ETF 선호 강화 → ETF의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의 범위와 강도 증가

한국 주식형 ETF 성장과 함께 집중투자형(편입 종목 수 1~20종목) ETF 비중이 높아지며 ETF의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 주식형 ETF 순자산총액,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보유 비중은 각각 213조 원, 5.8%로 2023년 말 대비 +399%, +2.2%p 늘었다(그림 1). 특히 개인 투자자의 집중투자형 ETF 선호가 지속되며 집중투자형 ETF의 순자산총액 및 거래대금 내 비중이 각각 38%, 44%까지 확대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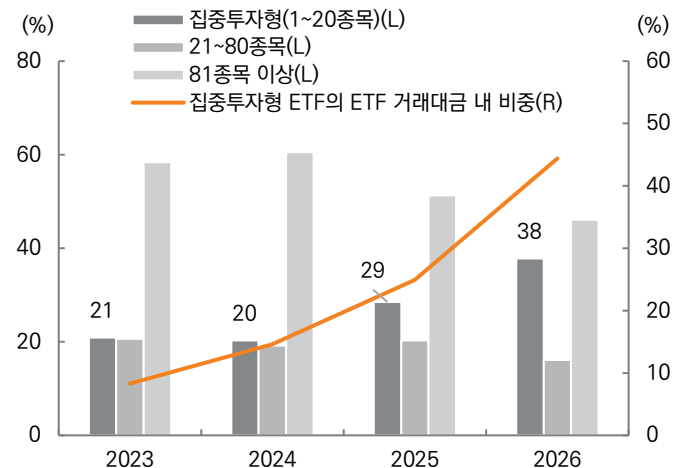
그 결과 전체 상장 종목 중 ETF가 편입한 종목의 비중은 2025년 1월 55.5%에서 2026년 8월 51%로 감소한 반면, ETF 내 개별 종목 편입 비중은 평균 1.1%에서 1.28%로 증가했다(그림 3). ETF 자금의 유출입 강도 범위와 강도별 성과 차이도 확대됐다(그림 4).

그림 1. 한국 주식형 ETF 규모/증시 유동 시가총액 대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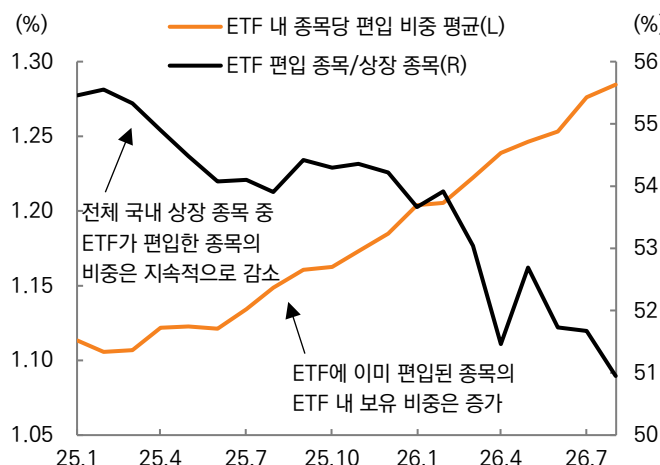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편입 종목 수 기준 순자산총액 및 거래대금 내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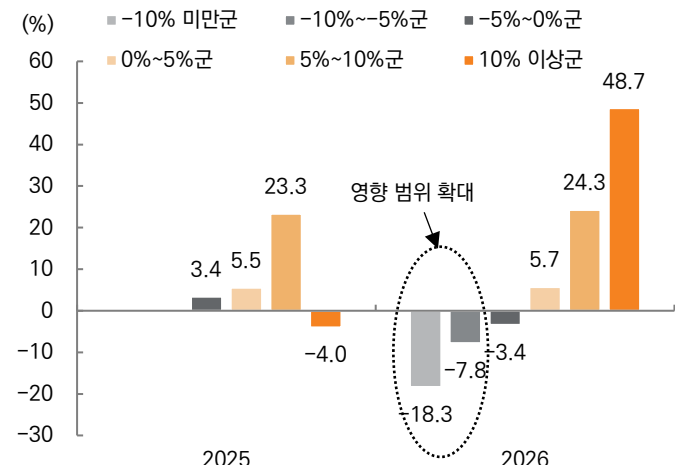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종목당 평균 편입 비중, 상장 종목 내 ETF 편입 비중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ETF 자금 유입 강도 구간별 개별 종목 평균 수익률(월별)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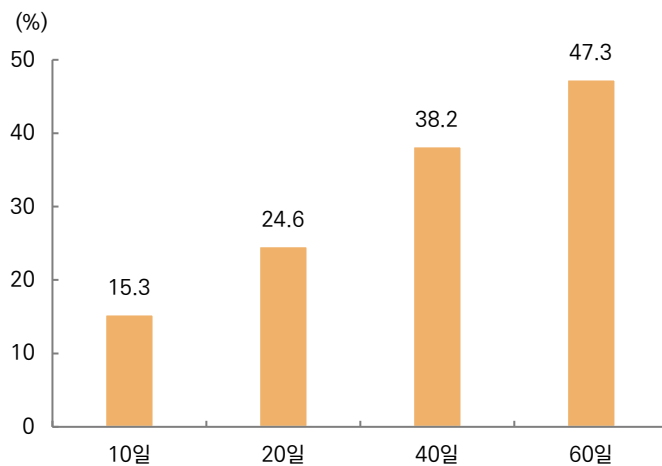
ETF 영향의 시작점, '편입'

'ETF 편입'은 ETF 영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TF 편입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1)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유입, 2) 편입 이후 ETF를 통한 자금 유입, 그리고 3) 편입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신호 효과가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섹터/산업 순자산총액 규모가 작은 한국 주식형 ETF 시장에서, 반도체, 테마, 배당 등 다양한 키워드별 ETF를 통해 발생하는 편출입은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

ETF 편입은 '선별된 종목'이라는 신호로 작용한다. 특히 상당 기간 편입이 없던 종목이 신규 편입(이하: 신규 편입)되면 유사한 다른 ETF에도 편입되는 군집 효과가 관찰된다. <그림 5>는 직전 60거래일간 신규 편입이 없던 종목이 편입된 이후, 기간별로 다른 ETF에 추가 편입될 확률이다. 60거래일 이내 추가 편입 확률은 47%로, 일반적인 편입 확률 27%를 크게 웃돈다. <그림 6>에서도 60일 이상 미편입 된 종목에서 신규 편입이 발생한 이후 순편입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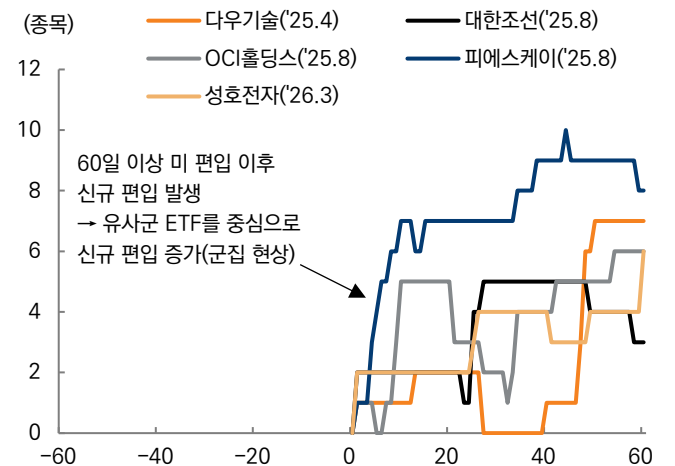
이러한 군집 현상의 원인은 '편입 기준의 유사성'이다. 지수 방법론에서 산업 분류와 시가총액 적용, 테마 분류 등이 비슷하며, 액티브 ETF에서도 유사 유형의 ETF에서 종목이 반복적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2025년 8월, 4차 산업 테마 ETF에서 신규 편입이 발생한 피에스케이(A319660)는 이후 AI 인프라 ETF와 차세대 운송 ETF 등으로 편입이 확산됐다.

그림 5. 편입의 군집 효과: 신규 편입 시 다른 ETF에 편입될 확률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군집 효과 예시: 종목 신규 편입 이후 누적 순편입 증가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편입 기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산업 분류 변경'이다. '산업'을 기준으로 종목을 편입하는 패시브 ETF는 산업 분류 변경에 따라 편출입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 국내 섹터/산업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 대다수의 지수 방법론이 '산업 분류에 따른 유니버스 구성→시가총액 판단→기타 팩터 반영' 순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경우 산업군 변경 시 변경된 산업 ETF군에 높은 확률로 편입된다.

ETF의 개별 종목 보유 규모가 커지면서 ETF 편입이 해당 종목의 단기 수급 및 성과를 결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SK스퀘어(A402340)가 대표적이다. SK스퀘어는 지난 6월 에프앤가이드의 업종 변경(복합 산업→반도체 및 관련장비, 6/15 적용)으로 반도체 산업에 편입됐고,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5개 ETF(반도체 ETF는 6개 ETF)가 SK스퀘어를 신규 편입했다(표 1, 그림 7).

편입 ETF의 리밸런싱 및 반도체 ETF 자금 유입으로 SK스퀘어에 6.1조 원 가량 ETF 순매수가 유입됐다(그림 8). 같은 기간 외국인은 -5.9조 원 순매도를 보였으나, SK스퀘어는 +24.2%(코스피 반도체 대비 +23.8%p) 상승했다. 편입에서 발생한 ETF 매수가 해당 기간 외국인의 매도를 상쇄한 것이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함께 장기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ETF 편입 및 리밸런싱 수급 유입 과정에서 단기적인 상대성차가 관찰된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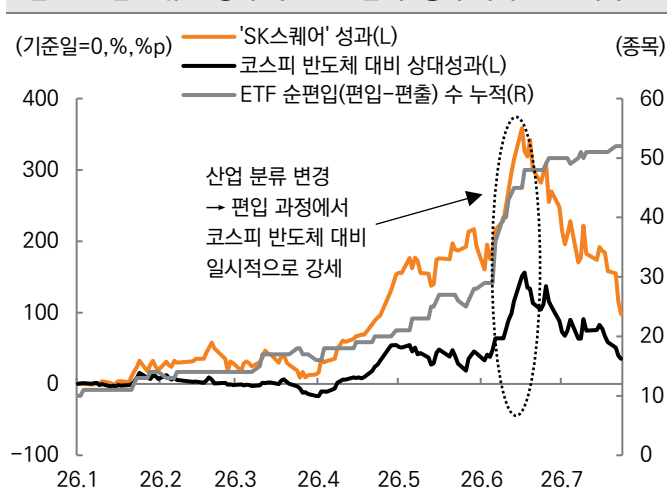
SK스퀘어와 동일하게 산업 분류가 변경된 이수페타시스(A007660) 역시 같은 기간 6개 ETF(반도체 ETF: 3개 종목)에 편입됐으며, 반도체 ETF를 통해 평균 유동 시가총액(6.3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6천 4백억 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대상 기간 수익률은 -2%로, 코스피 반도체 대비 +2.8%p를 기록했다.

표 1. 산업 분류 변경 이후(6/12~7/2) SK스퀘어 편입 ETF(순자산총액 상위 순 10개)

티커	ETF 명	순자산총액 (억원)	편입 비중 (%)	ETF 키워드	상세 키워드
A396500	TIGER 반도체TOP10	111,805	23.5	반도체	TOP 10
A395270	HANARO Fn K-반도체	48,209	4.2	반도체	전반
A395160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39,981	23.1	반도체	비 메모리
A495050	RISE 코리아밸류업	12,176	8.4	전략(밸류업)	밸류업
A441800	TIME Korea플러스배당액티브	10,180	3.7	고배당	고배당
A495850	KODEX 코리아밸류업	8,773	8.4	전략(밸류업)	밸류업
A488080	TIGER 반도체TOP10레버리지	6,766	13.2	반도체	TOP 10
A496080	TIGER 코리아밸류업	6,218	8.3	전략(밸류업)	밸류업
A0182R0	1Q K반도체TOP2+	2,716	19.4	반도체	TOP 2
A495550	SOL 코리아밸류업TR	2,567	9.6	전략(밸류업)	밸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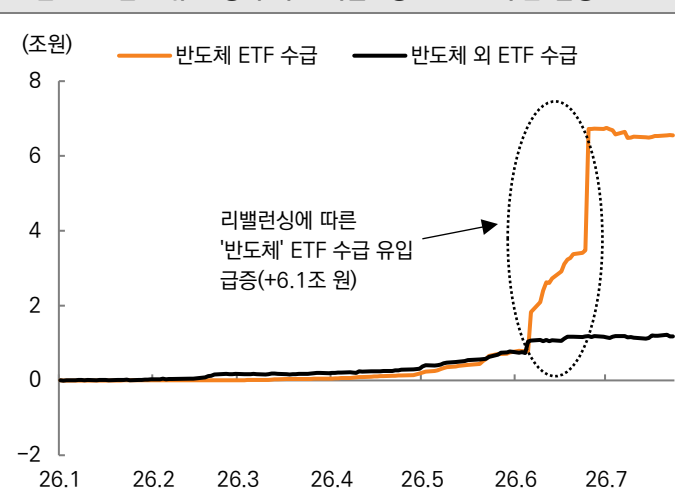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산업 분류 변경에 따른 순편입 수 증가 사례: SK스퀘어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산업 분류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 → ETF 수급 발생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ETF 편출입을 활용한 투자 아이디어

[개별 종목] 최초 편입과 순편입 수 증가: ETF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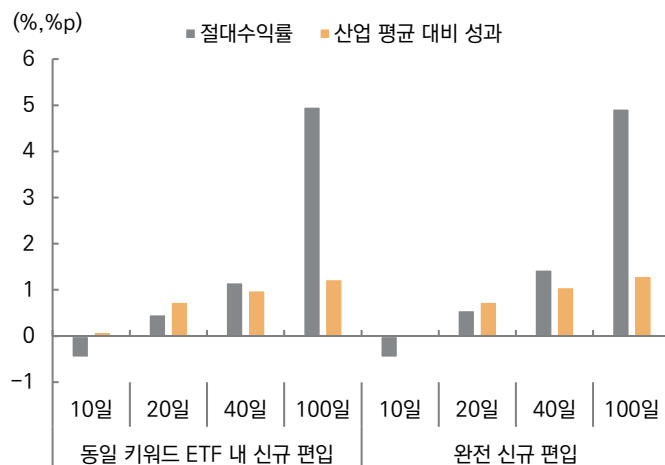
종목 단위에서 신규 편입과 순편입 수 확대는 특정 종목에 대한 ETF의 관심을 반영한다. 장기간 신규 편입이 없던 종목에서 발생하는 편입은 해당 종목이 ETF의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며 시장의 관심권에 진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순편입 수는 여러 ETF가 같은 종목을 반복적으로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개별 ETF의 판단을 넘어 시장 전반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선호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에서는 직전 60거래일 간 신규 편입이 없던 종목에서, 1) 동일 키워드(반도체 등) ETF 내, 2) 전체 ETF 내에서 신규 편입이 발생한 경우 편입 시점 이후 보유 일자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초기(10일)에는 절대/상대성과 모두 부진하지만, 20일 이상 보유 구간에서 산업 평균 대비 성과가 좋았다.

〈그림 10〉에서는 신규 편입 발생 이후 60거래일 이내 순편입 수에 따른 성과(40거래일 기준)를 정리했다. 단발성 편입으로 그친 경우(1~2건) 절대수익률, 산업 평균 대비 수익률 모두 저조했다. 반면 3~4건, 5건 이상 구간으로 갈수록 성과 개선이 관찰된다. 최초 편입과 함께 다른 ETF에서도 편입을 늘리는 것을 시장 내 선호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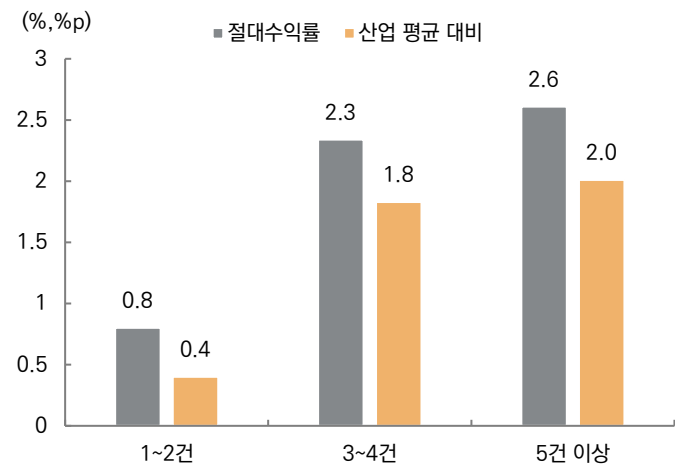
편입 시점에서 전체 ETF가 해당 종목을 유동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구간별로 나누면 3~7% 구간에서 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ETF가 적게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은 순편입 수가 증가하더라도 개별 종목 내 ETF의 영향도가 아직 낮으며, 고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 개별 종목은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동일 키워드 ETF/완전 신규 편입 종목을 편입 이후 성과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종목 순편입 수 구간별 성과



주: 집계 구간 순편입 수로 산정, 정기변경(코스피 200, 코스닥 150) 건은 제외.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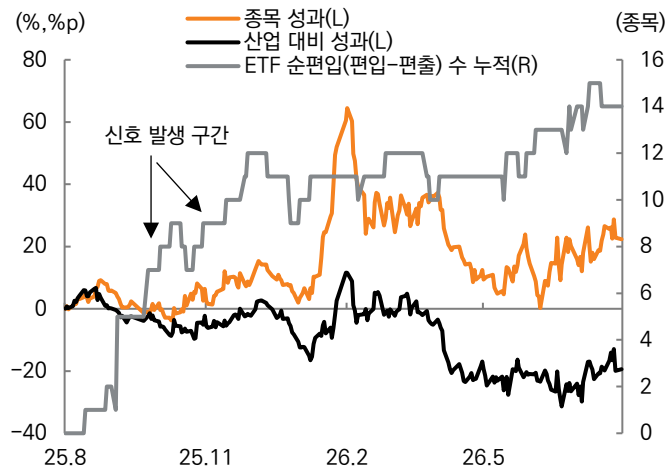
〈그림 11〉은 JB금융지주(A175330)의 1) ETF의 JB금융지주 순편입 수 누적치와, 2) 2025년 8월 이후 JB금융지주의 주가 수익률 및 산업(코스피 은행) 대비 상대성과 추이를 나타낸다. 2025년 8월 이후 편입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완만하게 누적되면서 산업 대비 성과도 함께 개선된 흐름이다.

2025년 9월 이후 JB금융지주를 주로 순편입한 ETF는 배당 ETF였다. 2025년 9월~11월 순편입 수는 9건이었는데, 고배당 ETF에서 4건(편입만 4건), 배당 성장 ETF에서 1건 순편입(편입만 1건)이 발생했다.

〈그림 12〉는 순편출이 신호로 발생한 사례로, 하이트진로(A000080)의 1) ETF의 하이트진로로 순편입 수 누적치와, 2) 2025년 8월 이후 하이트진로의 주가 수익률 및 산업(코스피 필수소비재) 대비 상대성과 추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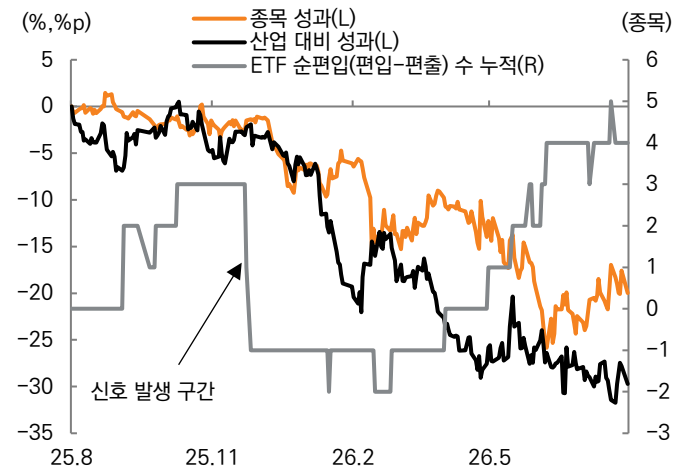
신호가 발생한 2025년 12월에는 4개 ETF에서 편출이 발생했다. 편출이 발생한 ETF 모두 순자산총액 500억 원 이하로 당시 시가총액(5,800억 원)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편출이 발생했던 ETF 유형이 고배당저변동, 멀티팩터, 고배당 커버드콜, 내수 테마로 모두 달랐다는 점에서 부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 JB금융지주의 성과 및 ETF 순편입 누적치



주: 산업 대비 성과는 '코스피 은행' 지수 대비 JB금융지주의 상대성과, 시작일=0,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하이트진로의 성과 및 ETF 순편입 누적치



주: 산업 대비 성과는 '코스피 필수소비재' 지수 대비 하이트진로의 상대성과, 시작일=0,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산업] 순편입 수 증가: ETF가 관심을 가지는 산업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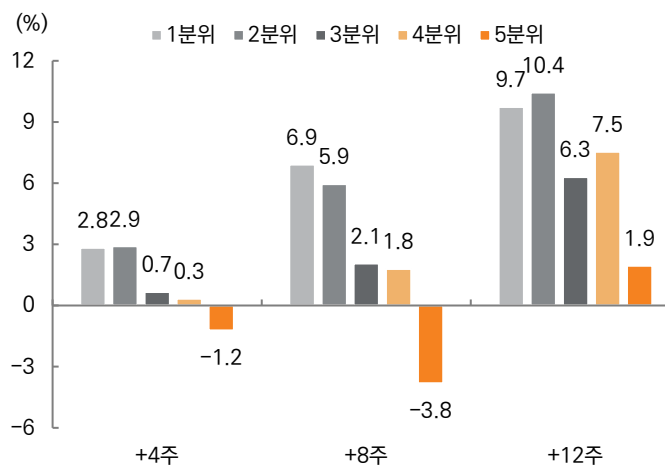
개별 종목 단위의 편입과 편출은 반도체, 배당, 테마 등 다양한 유형의 ETF를 통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편출입은 종목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시황과 시장 선호 등을 반영하며 산업 단위의 흐름으로 수렴된다. 다양한 유형의 ETF가 유사한 시점에 특정 산업의 순편입을 늘릴 경우, 개별 종목의 신호가 산업 전반의 수급 신호로 확장되는 것이다.

ETF의 순편입은 산업 단위에서 신호로 작용한다. <그림 13>은 1) 2주 간격으로 산업별 순편입(편입 수-편출 수) 종목 수를 집계하고, 2) 집계 기간 종료 이후 순편입 수 분위별로 산업 성과를 측정한 결과다. 전체 구간에서 순편입 수 상위(1~2분위) 산업의 성과 우위 및 5분위의 성과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시장의 선호도가 편입에 선반영된 결과다.

<그림 14>에서는 산업군 내 차별화 조건으로 ETF의 산업 보유 비중(산업별 전체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보유 잔고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 보유 비중을 구간별로 나눠 40거래일 기준 성과를 측정했다. 산업별 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잔고 비중이 3~5%인 구간이 산업 평균 대비 +3.3%p로 가장 높다. 반면 1% 미만은 +0.7%p, 7% 이상 구간은 +0.9%p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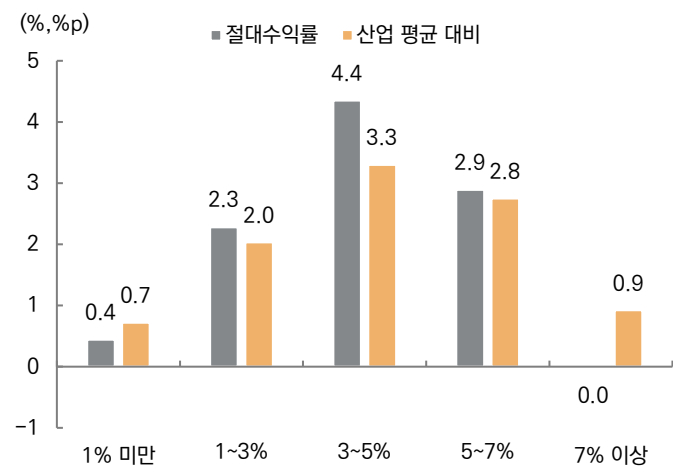
ETF 고비중 산업에서 다른 구간에 비해 산업 평균 대비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이미 높은 비중으로 인해 편입 이벤트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ETF가 적게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순편입 수가 증가하더라도 산업 내 ETF의 영향도가 아직 낮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순편입 수 분위별 평균 성과(1분위: 순편입 수 상위 20%)



주: 시점별 KOSPI, KOSDAQ 내 산업별 평가, 개별 산업 시가총액 20조 원 이상 대상.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산업의 ETF 보유 비중 기준 구간별 성과



주: 보유 비중은 ETF의 해당 산업 보유 잔고 / 해당 산업의 유동 시가총액으로 산출.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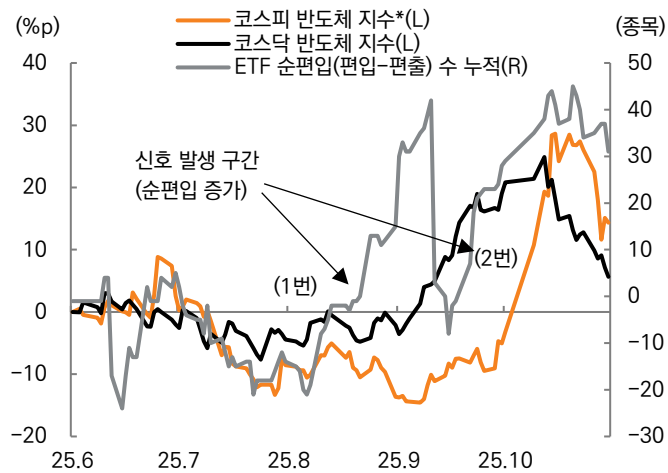
순편입 수 증가가 신호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반도체’ 산업이다. <그림 15>는 2025년 6월~10월 기간 동안 1) ETF의 반도체 산업 순편입 수 누적치와 2) KRX TMI 지수 대비 코스피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 코스닥 반도체 산업 지수의 상대성과 추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순편입 수 누적치와 상대성과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호 발생 1번 구간인 2025년 8월에는 순편입 수가 31건 증가해 직전 기간 -17건 대비 48건 순증한 뒤 40거래일 간 산업 지수는 +30.4% 올라 산업 평균을 +28.9%p 앞섰다. 신호 발생 2번 구간인 2025년 9월 말에는 지수 정체에도 반도체 산업의 순편입 수가 크게 증가(17건)한 후 시차를 두고 지수도 강세를 보였다.

<그림 16>은 순편출이 신호로 발생한 사례로, ‘미디어, 교육’ 산업의 2025년 10월~2026년 2월 기간 동안 1) ETF의 미디어, 교육 산업 순편입 수 누적치와 2) KRX TMI 지수 대비 코스피 미디어, 교육, 코스닥 미디어 교육 산업 지수의 상대성과 추이이다. 신호 발생 구간(2025.12.4~ 2025.12.18)에 순편출 17건이 발생한 이후 40거래일 간 코스피 미디어, 교육 산업 지수는 -2.2% 하락해 산업 평균 대비 -19.9%p를 기록했다. 이후 순편출 누적이 이어지는 동안 상대성과 부진이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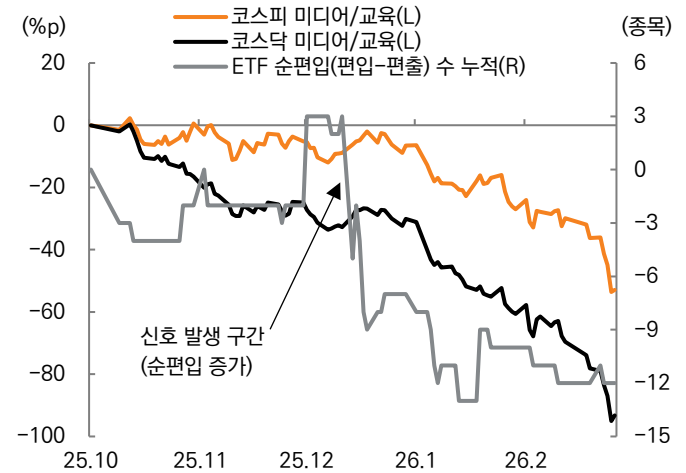
당시 편출은 주로 엔터 테마 ETF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엔터 테마 ETF에서는 덱스터(A206560), 대원미디어(A048910) 등 미디어, 교육 산업 종목을 편출하고 현대백화점(A069960), 신세계(A004170) 등을 편입했다.

그림 15. 반도체 산업의 상대성과 및 ETF 순편입 누적치



주: 상대성과는 KRX TMI 지수 대비 해당 산업의 상대성과, 시작일=0,
*코스피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로 산출,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미디어/교육 산업의 상대성과 및 ETF 순편입 누적치



주: 상대성과는 KRX TMI 지수 대비 해당 산업의 상대성과, 시작일=0,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ETF가 선호하는 개별 종목/산업 찾기

한국 주식형 ETF 성장과 함께 집중투자형(편입 종목 수 1~20종목) ETF 비중이 높아지며 ETF의 개별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ETF 편입'은 ETF 영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TF 편입은 개별 종목 입장에서 1)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유입, 2) 편입 이후 ETF를 통한 자금 유입 효과와 함께 3) 편입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신호 효과로 작용한다.

편출입을 활용한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최초 편입/순편입 수 증가를, 산업 단위에서는 순편입 수 증가/증가폭 상위를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최근 2주 기준 ETF의 관심 종목 및 산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4).

표 2. 신규 편입 종목(신규 편입 판단은 최근 60거래일 내 미편입 기준,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

티커	종목명	산업명	시가총액 (억원)	유동 시가총액 (억원)	ETF 키워드
A089890	코세스	반도체	3,897	1,957	중소형주 액티브
A107640	한중엔시에스	기계	3,762	2,388	중소형주 액티브
A092190	서울바이오시스	디스플레이	4,224	1,334	테마(테크)
A024850	HLB이노베이션	반도체	4,687	3,018	헬스케어
A099190	아이센스	건강관리	5,208	3,977	테마(테크)
A108670	LX하우스	건설	3,175	2,104	스타일

주: 리스트는 최근 30거래일 발생한 내역 기준, 전체 편입 내역에서 '유사군 ETF 내 신규 편입' 및 '전체 ETF 내 신규 편입' 대상.

신규 편입 발생 이후 대상 기간 내 재편출 발생한 경우 리스트에서 제외.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순편입 수 상위 종목(순편입 수 상위 순, 집계 기간: 2026.8.17~8.28)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억원)	잔고 비중 (%)	순편입 수 (종목)	편입 수 판단	잔고 비중 판단
A403870	HPSP	41,562	16.2	7	O	X
A034020	두산에너지빌리티	550,242	4.4	4	O	O
A007660	이수페타시스	82,806	24.8	4	O	X
A039030	이오테크닉스	50,079	21.1	4	O	X
A066970	엘앤에프	52,809	7.4	3	O	O
A222800	심텍	48,189	14.6	3	O	X
A257720	실리콘투	32,231	8.8	3	O	X
A475830	오름테라퓨틱	14,509	7.4	3	O	O
A356860	티엘비	9,836	6.3	3	O	O
A196170	알테오젠	216,976	6.6	2	X	O

주: 최근 2주 한국 주식형 ETF에서 발생한 종목별 편입 수, 편출 수를 측정하여 순편입 수 산정.

편입 수 판단은 3~7건인 경우 O / 잔고 비중은 3~7%인 경우 O, 나머지는 X.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4. 순편입 수/순편입 수 증가폭 상위 산업(증가폭 상위 순, 집계 기간: 2026.8.17~8.28)

산업	시가총액 (조원)	유동 시가총액 (조원)	잔고 비중(%)	편입 수 (종목)	편출 수 (종목)	순편입 수(종목)	직전 2주 순편입(종목)	증가폭 (종목)	순편입 수 상위 종목
반도체	3,104	2,405	2.17	67	22	45	29	16	HPSP, 이수페타시스
건강관리	299	159	1.72	22	13	9	-3	12	오름테라퓨틱, 알테오젠, 애플론
소프트웨어	146	89	1.81	6	2	4	1	3	NAVER, NHN

주: 2주 단위로 산업별로 발생한 편입 수, 편출 수 측정하여 순편입 수 산정, 증가폭은 최근 2주 순편입 - 직전 2주 순편입으로 산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에 의한 편출입 내역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정의 및 산식, ETF 키워드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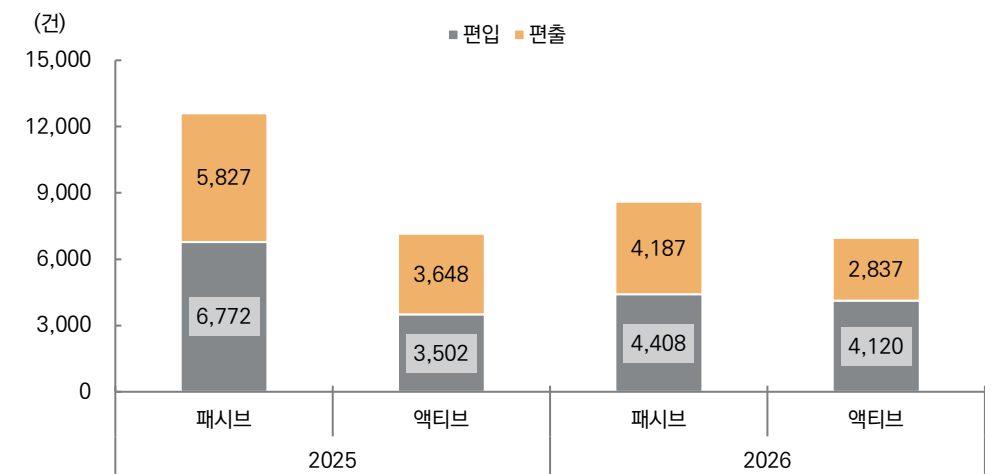
주요 정의 및 산식

편입/편출의 판정 및 현황

D일 오전에 D-1일 종가 기준 확정된 ETF의 포트폴리오인 PDF(Portfolio Deposit File) 공시. D일과 D-1일의 PDF를 비교하여 추가된 종목은 편입, 제외된 종목은 편출로 판정

〈그림 17〉은 한국 주식형 ETF 유형별 편출입 건수로 액티브형 ETF 내 편입 건수는 이미 전년도를 상회

그림 17. 한국 주식형 ETF 내 발생한 편출입 건수



주: 한국 주식, 한국 주식 혼합형 ETF 대상.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신규 편입 비중의 판단

신규 편입된 종목의 편입일 PDF내 비중으로 반영

ETF 자금 강도의 측정

ETF에 의한 개별 종목 자금 유출입 규모는 ETF가 보유한 종목 잔고를 기반으로 측정. 연속된 거래일의 개별 종목 보유 잔고의 차이를 산출하고, 개별 종목의 주가 등락에 의한 가격 효과를 배제한 나머지 부분을 ETF에 의한 자금 유출입으로 산출. ETF별로 자금 규모를 산출 후 합산하여 개별 종목에 대한 ETF 전체 자금 규모를 측정

자금 강도는 유동 시가총액 기반. 실제로 유통 가능한 물량에 대한 충격으로 해석. 산식은

$$ETF \text{ 자금 강도} = ETF \text{에 의한 개별 종목 자금 유출입 규모} / \text{유동 시가총액} \times 100$$

종목당 편입 비중 평균

PDF 내 종목 편입 비중의 평균

ETF 키워드

ETF의 자금 유출입, 종목의 편입/편출은 유사한 산업/테마(키워드) 내 ETF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 국내 상장 한국 주식형 ETF의 키워드 분류 체계는 아래와 같음

표 5. 국내 상장 한국 주식형 ETF의 키워드 분류 체계(순자산총액: 억원, 기준: 2026.8.28)

카테고리	키워드	순자산총액	종목 수	대표 ETF (키워드별 순자산총액 1위 ETF)	키워드 내 세부 키워드
대표 지수	대형주	787,580	82	KODEX 200(A069500)	코스피 200, 한국 전반, 코스피, 코스피 집중, 코스피 200&채권, 코스피 대형, KRX 300, 대형 성장, 대형 가치, KRX 100, 코스피 200 EW
	L액티브	22,926	8	KODEX 200액티브(A494890)	코스피 액티브
	중소형주	111,237	21	KODEX 코스닥150(A229200)	코스닥 150, 코스닥 집중, 코스닥 150&채권, 코스피 중소형
	L액티브	8,276	6	KoAct 코스닥액티브(A0163Y0)	코스닥 액티브
섹터/산업	반도체	496,317	46	TIGER 반도체TOP10(A396500)	전반, TOP 10, TOP 2&채권, TOP 2, 단일종목, 비 메모리, 소부장, 공정, 반도체 전반
	IT	37,223	7	TIGER 200 IT(A139260)	IT, SW, 코스닥 IT
	금융	32,251	15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A466940)	은행, 증권, 금융 고배당, 금융 전반, 보험
	조선해운	25,692	7	SOL 조선TOP3플러스(A466920)	조선해운, 조선해운 소부장
	리츠	21,444	9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A329200)	리츠, 리츠&채권
	헬스케어	17,366	19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A462900)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 이전, 코스닥 바이오, 헬스케어&채권, 의료기기, 바이오시밀러
	방산	16,078	7	PLUS K방산(A449450)	방산, 방산 소부장
	자동차	6,673	5	KODEX 자동차(A091180)	자동차, 자동차&채권, 자동차 소부장
	화장품	4,267	3	TIGER 화장품(A228790)	화장품
	건설	3,404	2	KODEX 건설(A117700)	건설
	산업재	2,864	3	TIGER 200 중공업(A139230)	중공업, 운송, 산업재
	복합산업	3,397	2	ACE 반도체Plus전략산업(A0228G0)	반도체+조선+방산+원자력+자동차, 금융+반도체+지주
	미디어	1,076	2	TIGER 미디어컨텐츠(A228810)	미디어
	필수소비재	760	4	TIGER 경기방어(A139280)	필수소비재, 필수소비재&채권
	에너지	594	3	KODEX 에너지화학(A117460)	에너지/화학
	소재	422	2	KODEX 철강(A117680)	철강
	경기소비재	207	2	KODEX 경기소비재(A266390)	경기소비재
	기계장비	151	1	KODEX 기계장비(A102960)	기계장비
	커뮤니케이션	70	1	TIGER 200커뮤니케이션서비스(A315270)	커뮤니케이션
테마	테마(환경)	140,468	40	KODEX AI전력핵심설비(A487240)	전력, 2차전지, 원자력, 2차전지 소부장, 신재생 E, 기후 대응, 수소, 태양광, AI 인프라, 한국 AI 인프라
	테마(테크)	56,962	44	KODEX 로봇액티브(A445290)	로봇, 우주항공, 광통신/네트워크, 4차 산업, 메타버스, AI, BBIG, 게임, 모빌리티, 인터넷, 전기차, 테크, SW, 플랫폼, 글로벌 히트류, AI 중소형
	한국 ESG	9,960	11	RISE ESG사회책임투자(A290130)	ESG 우수, ESG+팩터, 지속가능성
	테마(생활)	3,832	15	ACE KPOP포커스(A475050)	소비, KPOP/엔터, E 커머스, 질병 치료
	테마(기타)	3,112	4	TIGER 코리아테크액티브(A471780)	테크, 농업
스타일/전략	커버드콜	137,419	22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A498400)	대형주 커버드콜, 반도체 커버드콜, 금융 커버드콜, 고배당 커버드콜, 중소형주 커버드콜
	고배당	69,122	19	PLUS 고배당주(A161510)	대형주 고배당, 고배당, 고배당&채권, 저변동 고배당, 중소형 고배당
	전략(그룹주)	53,544	13	KODEX 삼성그룹(A102780)	삼성 그룹, 현대차 그룹, 삼성 그룹&채권, 한화 그룹, 포스코 그룹, LG 그룹, 5대 그룹, 두산 그룹, 카카오 그룹
	전략(밸류업)	36,046	18	RISE 코리아밸류업(A495050)	밸류업, 밸류업 액티브, 주주가치
	배당성장	8,707	7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A0052D0)	배당성장, 배당성장&채권
	전략	5,407	13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A0151P0)	전략 산업, 실적+외인 수급, 트렌드, 개인 수급, R&D, IPO
	스타일	2,665	14	KODEX 우량주(A275300)	모멘텀, 퀄리티, 저변동, 밸류&채권, 멀티팩터
기타	기타	329	1	TIGER 우선주(A261140)	한국 우선주
	개별주	290	1	WON 삼성전자현대차채권혼합50(A0203S0)	혼합자산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